

単発音読クリニック パワ中9 ピクニック

아빠:오래간만에 산에 오르니 기분이 참 좋구나.

딸 :네. 공기가 너무 맑고 상쾌해요.

아빠:힘들면 조금 쉬어갈까?

딸 :아빠,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. 배고픈데 도시락 먹고

올라가면 안 될까요?

아빠:그래. 잠시 저쪽 나무 밑에 앉아서 점심을 먹자.

딸 :엄마가 무엇을 싸 주셨을까요? 우와! 김밥하고 샌드위치, 바나나도

있어요. 많이 드세요, 아빠.

아빠:그래. 정말 맛있구나.